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게, 나쁘게 결정 된다

본 문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38-40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
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1.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게, 나쁘게 운명이 결정된다.
2.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좋게 되기도 하고, 혹은 나쁘게 되기도 한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모시고 살 때>도 ‘어떻게 구상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보통으로 살기도 하고, 혹은 재미있게 멋있게 살기도 한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4.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 말씀을 보면, 감옥에 있던 한 간수가 바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하니, 바울은 그에게 말해 주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정확한 방법’이었다.
5. 이 시대도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정확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곧 “그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고, 이 시대 휴거를 얻고, 그리함으로 하늘의 영원한 신부로서 거듭나리라.” 함이다. 우리는 <정확한 방법, 답>을 알고 있으니, 절대 그 방법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
6.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다. 왜 마르다와 마리아 집으로 가셨을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했기 때문이다. 곧,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데 보다 <육적인 자, 마르다>는 ‘외적인 세계’에 해당되는 음식을 준비했고, 보다 <영적인 자, 마리아>는 ‘내적인 세계’로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이 잘 되어 있으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신 것이다.
7.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함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 되어 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려 “나는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다.” 하며 자기 길을 갔다. 절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주를 절대 믿고 따르며, 주와 하나 되어 행해야 된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섬기고 모시며 살 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게, 나쁘게 좌우된다.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자들을 모실 때도 보통으로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모실 때 보통으로 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좋게, 나쁘게 좌우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해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잘해야, 잘 된다.

9. <구상>을 잘해라. <설계>를 잘해라.

10. <그림을 그릴 때>도 ‘구상’에 따라 좋게, 나쁘게 좌우된다.

11. <월명동 자연성전>은 ‘하나님의 구상’이다.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 행하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세계로 만들어 놓았다.

12. <구상>과 <설계>다. 임시변통으로 하면 안 된다.

13.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펴실 때, 임시변통으로 하지 않으셨다. <구상>과 <설계>대로 하나하나 진행하시어 이같이 대(大) 역사를 이루셨다.

14. <그림>을 그리든지, <집>을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꾸 연구

하고, 생각하고, 구상하여 보다 이상적으로 만들고, 행해야 된다.

15. <기다리던 주>가 왔어도 ‘발판’이 없으면 그 위에 설 수가 없다. <유대 종교인들>은 구약 4000년 동안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메시아 예수님을 맞지 못했다. 왜?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로 예수님은 발판이 없으니, 그 위에 설 수가 없었다.
16. 가령 비행기가 오기를 기다리다 마침내 비행기가 오게 됐다 하자.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할 장소가 없으면, 비행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게 된다. 이같이 예수님은 기다리던 자들이 발판이 되지 못하니, 그들이 아닌 새로운 자들을 데리고 역사를 펴 나가셨다.
17.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주가 오셔도 맞을 수 있다.
18. 축소시켜 자기 삶을 볼 때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일’을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실패한다.
19.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준비’와 ‘조직’을 잘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다. 만일 둘 다 음식을 준비했다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 그 집을 떠났을 것이다. 마치 축구할 때 각 위치별로 조직을 잘 해 놓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조직’을 제대로 해 놓고 예수님을 맞은 것이다. 이와 같이 성리사도 질서정연하게 조직하고, 준비함으로 주를 맞아야 된다.

20. <좋은 방법>을 택해서 행해야 성공하게 된다.
21. 회사를 경영할 때도 ‘좋은 방법’을 택해서 투자하고 행해야 성공한다. 그러지 않고 ‘임시변통, 주먹구구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22. 각 교회에서도 ‘임시변통,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먼저는 ‘구상과 설계’다.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조직’을 잘해야 된다.
23. <주>는 ‘준비한 곳, 예비한 곳’으로 간다. 이미 조직해 놓았으니, 조직한 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멋있게 만들라는 것이다.
24. 운동경기를 보면, ‘멋있게 구상하고 조직을 잘 해 놓은 곳’이 이긴다. 세상만사가 그러하다.
25. 구상하는 대로, 설계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좋게 혹은 나쁘게 좌우된다. 고로 ‘잘하는 데’ 신경쓰고 행하여라.
26. 할 때는 ‘미리’ 해야 된다.
27. 미리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